

이우현



MIP

MBC INNOVATION PLAN

BRAND NEW MBC

조직과 콘텐츠의 전면적 혁신



내가 사장이라면 노조를 이렇게 죽이겠다

- 어느 사원이 꿈꾸는 「죽은 노조의 회사」 -

내가 사장이라면 노조가 되었든 커녕 농성도 제대로 못하는 아웅노조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사장이라면 노조가 극장 추천제니, 탄핵제니, 임명 동의제니 어쩌구 저쩌구 하기 전에 적어도 편성국장·보도국장 만원은 해당부문의 모든 사원들이 참여해 뽑는 직선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사원투표가 있는 날은 하나의 축제로 만들겠다. 국장으로 선임된 간부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편성정책, 보도정책을 전 사원앞에 밝히도록 하고 여러가지 의안에 경표 존중하지 않도록 많은 권한을 심어 주겠다. "나는 기자들아, PM들의 직선투표로 선출된 사람" 입을 강요하는 국장한테 웬만한 의안이 통하겠는가? 그래도 뉴스나 프로그램 내용 때문에 바깥에서 계속 압박을 행사할 경우 나는 이사·국장과도 함께 그 압박의 내용을 전 사원들앞에 공개한 다음 예외지 없으면 파업에 돌입해 버리겠다. 파업은 노조만 하는게 아니다. 양국이나 프랑스 방송사들처럼 전 사원들이 일시에 손을 놓고 칼라바칸 방송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칼라바칸에 불주피로 의입의 부당성과 MBC 사원들의 결의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장이라면 뉴스의 편집장을 탈취하기 위한 「분사별 전달제」를 여러가지 선진의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겠다. 직선 보도국장이 없어서 하겠지만 심층분석·해설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학·사회고발성 뉴스와 카메라출동을 때 입이 사정들도 높일 것이다. 토론프로그램, 시사다큐멘타리에

내가 사장이라면 소나 코미디어 프로그램의 품격도 높여 보겠다. 외국에서 참투해 들어오는 건강지 못한 연예인들을 철저하게 필터링해서 시청자들의 자기경화에 기여하는, 삶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회풍자를 기미한 오락 프로그램이 생산되도록 힘써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우일예 한택의 「프로그램 혁이난는 기계」로 권택한 PM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키는 문제도 지금부터 풀어보겠다.

내가 사장이라면 필요이상 비대해지고 중앙집권화된 기획·관리부문을 프로그램 일선으로 많이 편입되도록 대대적인 제도개편을 꾀해보겠다. 선진국들처럼 프로그램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손실도 막는 프로그램 매니저·위성코디네이터 등의 제도를 전면 도입해 현업 근무자와 기획·관리사원들이 함께 신명나게 일수 있도록 궁리해 보겠다.

내가 사장이라면 기획·관리사원들과 부원간·직능간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방송제작에 있어 주동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보겠다. 사내 문화 향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내 신장제도를 의무화시킬 것이다. 전 사원들과 시청자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해당기간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PM이나 리 카기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격려 수당하는 쪽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사장이 있는날 역시 회사의 축제로 만들겠다.

기 위해서 외부세력과 내통해 사내 질서를 깨뜨리고 뉴스나 프로그램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스리겠다. 그리고 '한전' 울리기 위해 만용을 발휘하는 간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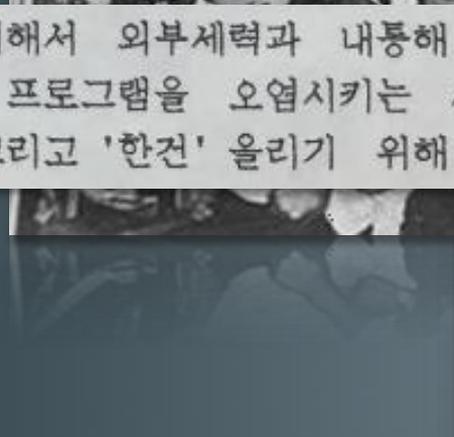
아침을 채우
를 케드리고 뉴
하게 다스리겠
하는 간부도

뿐겠다. 요즘 시청자들도 그렇지만 일선 PM들 사이에서도 "세상은 마냥 아름답다" "일상은 그저 사랑스러움으로 시작해 사랑스러움으로 끝난다"는 식의 발방알방하고 그리 견강하지 못한 드라마만 만들도록 이사·중간간부들이 이끌고 있다는 불안이 많은 모양인데 일선 PM과 중간간부·담당이사 그리고 시청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제도 열어를 생각이다. 그래서 남아간의 사랑을 다루되 견강한 드라마,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드라마,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드라마, 사회적 질문을 드라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함께 방송되도록 하겠다.

무방'이라는 얘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사장으로서 할일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이래도 노조가 쉽게 파업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해서 가급적 임금투쟁이나 하는 「조용한 노조」로 만들겠다. 노조를 죽이는데 이보다 좋은 묘안을 가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 보도부문의 입사 12년된 원 사원겸 조합원-



리포트 분노와 슬픔 넘어서..

MBC

박상후 / 전국부장

2014. 5. 7. MBC <뉴스테스크>



1

Precondition

선결조건

- ☑ 조직 “바로 세우기”
- ☑ 자율성·공정성 확립
- ☑ 아래로부터의 혁신



혁신의 출발! 조직 “바로 세우기”

- 전면적 인적 쇄신, 엄정한 인사조치
- 해고자들 복직, 강제 전보사원 원직 복귀
- 3백여 시용 경력 직원들에 대한 인사 원칙

〈MBC 바로 세우기 위원회〉 철저한 진상조사

- 노사 합의, 사원 대표 + 시민단체 대표 등 참여
- 조사 결과 토대로 사규 등에 의거한 조치

[주요 진상조사 대상]

-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협력, 사원들에 대한 사찰
- 세월호 ‘영상 왜곡’ 지침 하달 등 수많은 왜곡, 조작 행위
-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 위한 사규 개정
- 해킹 툴 ‘트로이 컷’ 설치, 사원들 감시

2014. 05. 02. 보도국장 하달 지침

학생들 휴대폰 동영상 내용 사용금지/세월호 유족들 팻말 영상 사용금지

‘보도 지침’ 망령 부활
**김장겸 체제 보도국,
 부당·편파 영상 지침**



부당하고, 강압적이었다. 편파적이고 악의적
 은 담은 글씨 등도 역시 방송으로 못 나가게 지
 중 분 해되면서, 권태일 부장은 보도취문 영상



자율성·공정성 확립

- 보도 편성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권’ 명문화
- 공정방송협의회 등 단체협약 강화

여럿이 함께! 하는 혁신

- ‘톡톡 위원회’ 구성
- 다양한 ‘Cheer-up 프로그램’

2

Content for me

나를 위한 콘텐츠

“활짝 열려있는” 콘텐츠

나를 대변하고 위로해 주며
 나를 대신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고
 시청자가 팩트 체크를 하는 시대









뉴스 & 시사교양

- ‘뿌리를 찾아가는 뉴스’ (Root Finding News)
- ‘열려있는 뉴스’ , ‘과학적인 뉴스’
- 뉴스 앵커 전면 교체
- <뉴스데스크> 앵커 ‘열린 오디션’ 도입
 - ▶ 후보 추천부터 선정까지 시민들 참여

〈뉴스데스크〉 Spin-off : 세대별 맞춤 버전

- 세대별로 각기 다른 관심사를 충족
-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세대별 관심사 분석
- 공중파 + 페이스북 + 유튜브 등 다양한 SNS 플랫폼 활용
- 뉴스데스크 ‘종합판’ = 공통의 관심사 + 각 버전 핵심내



MBC
뉴스데스크 2030

MBC
뉴스데스크 4050

MBC
뉴스데스크 60+

MBC
뉴스데스크 종합판

〈PD수첩〉, 〈2580〉 등 시사프로그램

- 탐사기능 강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포맷 혁신
-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신설
- ‘명품 다큐’의 부활과 진화
 - ▶ 장기 기획을 위한 투자,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진출

드라마 & 예능 & 라디오

- 드라마, 예능, 라디오 PD도 **‘저널리스트’**
ex) 새로운 트렌드와 컨셉의 ‘정치 드라마’ 기획
-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나’ 를 위한 젊은 드라마
- 라디오 MC 대폭 교체 : ‘블랙리스트’ 귀환
- **‘Above Radio’** 독자적 팟캐스트 채널로 플랫폼 확장
- 오디오 콘텐츠 개발, 뮤직 산업 진출 (BBC 벤치마킹)

3

Popcorn Platform

팝콘 플랫폼

획기적인 플랫폼 전략

[1인 미디어 연합 채널 MCN 시스템 도입]

- 공영방송다운 테마로 MCN 진출
 - 1인 미디어시대, MCN 산업 발전에 기여
- 기자, PD, 아나운서와 ‘셀러브리티’ 확보
- 각기 다른 테마의 ‘1인 미디어’ 채널 론칭
ex) 000기자의 ‘국회 뒷이야기’, 김민식 PD의 ‘드라마 비하인드’



Asia Content Highway 건설

- 개별 스타 중심 한류 유통방식 탈피한 디지털 플랫폼
- ‘아시아 콘텐츠 하이웨이’ 를 통한 대량 직접공급
- 드라마 예능 다큐를 실시간, 아시아 전역에 전송
- 방송 콘텐츠 통번역센터 설치
- 모바일 인터넷 케이블 TV 등 다양한 플랫폼 Targeting
- 해당 국가별 광고, PPL 차별화 및 콘텐츠별 유료화

4

Difference

차별성

제작 시스템 혁신



제작의 과학화 (Media Science)

- ‘인공지능, 딥 러닝을 적극 활용하는 미디어 기업만 살아남는다’
 - ▶ 2017 INMA (세계뉴스미디어협회) 총회 결론
- 시청자의 피드백, 뉴스 편집, 프로그램 기획에 빅데이터 알고리즘 활용
- ‘이노랩 (InnoLab)’ 설치
- 몰입도 실험실(Attention Lab) 설치 및 운영

Hollywood 방식 Super Production

- ‘스튜디오드래곤’의 교훈
- 코스닥 상장 첫날 시가총액 2조원 돌파
- <미생>, <도깨비>, <황금빛 내 인생> 등 대박 드라마 제작
- 글로벌 콘텐츠 확장 위한 ‘선진 시스템’ 도입 시급

코스닥 상장
스튜디오드래곤(주)

KRX

스튜디오드래곤

5

Belief

신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열정페이’ 타개
- TF구성 : 비정규직 업무 현황, 근무 실태 등 조사
- 프리랜서 작가, 출연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표 3〉 직급별 시간당 임금

직급	주당 평균 노동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	월 평균 급여	시간당 임금
메인	46.7	206.8	282만 3,077원	11,106원
서브(코너)	55.1	244.0	208만 7,973원	6,801원
막내(자료조사)	55.7	246.7	120만 6,259원	3,880원

출처: 콘텐츠진흥원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공정거래시스템 등 ‘외주사 상생 규범’ 명문화

- 불공정거래 계약, 표준제작비 등 개선
- 고압적 편집권 행사, 협찬 유치 압박 등 관행 철폐
- 영국 BBC ‘상생모델’ 벤치마킹
 - ▶ ‘콘텐츠 업그레이드’

“지역사, 자회사 상생방안”

[지역 MBC]

- 사장 선임 등 인사제도 개선, 구성원들과 협의
- 지역 특성 살린 해외용 콘텐츠 기획 (넷플릭스 등에 제안)
- 플랫폼 확장, 유통 마케팅 지원 등 상생 방안 마련

[자회사]

- 본사와 플랫폼 확장, 콘텐츠 혁신계획 공동 수립
 - ▶ 아시아 콘텐츠 하이웨이, 슈퍼 프로덕션 시스템

세월호 유족 유경근씨
돌마고 집회 연설



